

화요글발



서 규 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로컬의 시대, 그리고 자기중심적 엔트로피 극복

있기 때문일 것이다.

로컬의 등장 이후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의 '로컬 날리지' (local knowledge) 라는 책을 다시 보고 있다.

그는 원주민의 관점에서 발리섬을 연구했고, 로컬 이해를 위한 독특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럽, 미국 중심의 지식을 보편지 (universal knowledge)로 인식하고, 그 외는 지역지로 간주해왔다.

기어츠가 로컬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소위 인간을 연구한다는 학문은 틀에 갇힌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폐쇄성이란 로컬-유니버설 지식을 각자의 편견 아래 가둬 놓고 이해하지 못하는 간극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지적 (知的) 엔트로피와 도덕적 마비'로 인한 간극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지적했다.

누구라도 로컬-내셔널 혹은 로컬-유니버설 간의 간극을 극복하려 할 때, 지역지 (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떤 접근도 할 수 없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지역지의 자기 지식, 인식, 이해의 과정을 타자의 지식, 인식, 이해의 과정들을 연결하고 구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삶을 바로 잡기 위한 방향성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로컬의 등장은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수단 중 하나다.

지역 주민, 기업, 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 분모가 만들어지고, 지방 발전을 주도하던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측면도 있다.

기업 창업,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로컬시대가 성과를 보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집전된 고유의 지혜와 정체성이 우러나와야 한다.

지역산업과 일자리, 학교와 병원이 갖춰져 사람 사는 공동체도 만들어져야 한다.

중앙의 도움 없는 로컬시대는 더디게 진행 될 것이기에 정부가 도와주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발전의 경로는 지역마다 다르고, 독특할 것이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유의 건축물과 지혜, 생활문화가 쌓여 로컬리즘이 직조 (織造)되기 때문이다. 20세기 미국의 카운터컬처가 주류문화에 융합되기까지 한 세대 이상 걸렸다. 소멸 직전의 로컬, 과밀화로 죽어가는 내셔널의 이항대립과 폐쇄성, MZ세대들의 로컬 운동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정책의 엔트로피를 과감히 탈피할 때 로컬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